2025 새해 이렇게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 반값여행' 확대, 관광객 등 생활인구 증대 매진"

지역상품권 할인율 높이고 구매한도 늘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전입 청년 매월 25만원 지급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대를 핵심과제로 삼고 군민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민과 함께 지역 발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겠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신(新)강진을 창조하고 '살기 좋은 강진, 행복한 강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품권 구매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월 구매한도액을 100만원으로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진 반값여행'은 누구라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1인 연 2회만 가능했던 신청 기회는 4회로, 1인 여행객 지원비 5만원은 10만원으로 확대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경기 부양책으로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상반기에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농·림·축·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농어가 소득증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강진군 주력산업인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28.2%에 해당하는 13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 대응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노력한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19년 연속 선정된 강진쌀의 경쟁력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능성 쌀 '미호벼'와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논콩', '서리태'를 확대 재배해 농가 소득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전용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수출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생각이다.

또 강진한우의 1등급 출현율을 향상시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흑염소 사육을 확대, 강진 축산업을 육성한다. 두릅나무, 엄나무 등 소득작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강진만 패류감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3000여 어업인들의 묵은 체증을 해소해 나간다는 목표다.

강 군수는 올해 중점사업이 될 생활인구 증대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를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삼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계획이다. 강진군의 바다낚시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바 다낚시배 확대와 함께 강진항을 마량항의 확장구역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고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년 가까이 실현하지 못한 대구면 용운리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도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가우도에는 '빛의 숲 관광갤러리'를 조성해 가우도를 관광 거점으로 재도약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외지 전입 청년들이 강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25만원의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강 군수는 육아 정책 또한 인구유입에 빼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출산율 증가 효과가 입증된 육아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본격화해 매년 90명의 유학생을 유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5년은 강진군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소통하고 강진의 우수자원과 군민의 휴먼파워,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결해 신(新)강진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나주시, 3월중 공익수당 지급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

농림어업인 1인당 60만원
다음달 7일까지 행정센터 신청

나주시가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나주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에 1인당 농림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농림어업인은 농림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림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림어민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주소등록을 유지하고 실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이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각 읍·면·동과 시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전액을 지류와 모바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년 농기계 교체 수요조사

7월4일까지 농업인 대상

함평군은 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와 신규 구입을 위한 수요 조사를 7월4일까지 농업인 대상으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 현장의 필요 기종을 파악하고,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과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점, 동부점, 서부점)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2026년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에 반영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종을 우선 도입한다.

현재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퇴비살포기, 보행관리기 등 96종, 461대의 다양한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목공 프로그램 '함께 나누는 나무세상' 수강생들이 실습으로 만든 책상·의자 세트를 한글교실 참여 어르신께 선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한글교실 어르신들에 책상·의자 세트 선물

장성 주민들 목공 교실 22개 제작

장성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책상·의자 세트 22개를 한글교실 참여 어르신께 선물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책상·의자 세트는 지난해 장성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중장년층 주민 대상 목공 프로그램 '함께 나누는 나무세상'을 운영해 제작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목공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매주 토·일요일이면 20명의 수강생이 수련관에 모여 목공 기술을 익히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재원은 '2024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충당했다.

4개월여에 걸친 노력 끝에 나무책상과 의자 22개 세트를 완성한 주민들은 군의 협조를 얻어 장성군 문해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한글교실' 참여 마을 가운데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 곳을 찾았다. 이후 후원을 희망하는 마을 6곳을 선정해 책상과 의자를 전달했다.

책상·의자 세트를 받은 월산마을 고재봉 어르신은 "앞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평생교육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